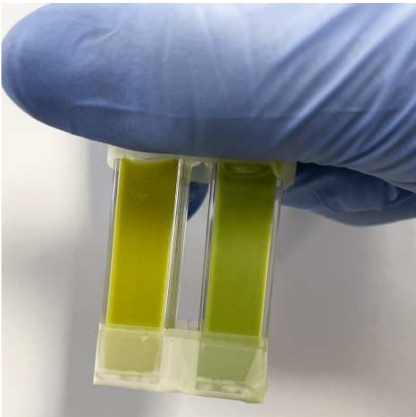




[낙농경영] 美 농무부, 요소태질소 측정을 위한 앱 개발 추진

- 실시간 MUN 함량 파악으로 사료비용 절감 및 암모니아 배출량 저감 기대



미국에서 낙농가들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소태질소(MUN)는 혈액이나 소변 등 생체성분 중 요소성분에서 유래하는 질소 화합물로 암모니아 상태의 소변으로 배출되어 대기나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으며, 요소태질소 함량이 높은 젖소는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한편, 기존에는 요소태질소(MUN) 함량 측정을 위해 샘플을 실험실로 보내 결과를 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최근 농무부 산하 농업연구소(ARS)는 실시간으로 이를 측정하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우유 샘플에 염료를 섞어 요소 분해효소가 있는 유리병에 담은 후, 효소가 없는 유리병과 색 차이를 비교해 요소태질소(MUN) 함량을 제공하게 된다.

실시간으로 함량을 확인함으로써 낙농가는 젖소에 급여하는 단백질 사료량을 조절해 사료비용 절감은 물론 암모니아 배출량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출처 : usda.gov, 8월 9일자 >

[라벨링] 美 캘리포니아주, 식물성 대체식품에 유제품 용어 표기 허용

- 표현의 자유 존중...식물성 유제품에 버터 등 유제품 용어 표기 허용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이 식물성 유제품 브랜드인 미요코 제품에 유제품 용어 표기를 허용키로 했다.

지난해 8월 해당 법원은 업체 측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버터’ 뿐만 아니라 동물 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인 ‘크루얼티 프리(Cruelty-free)’와 ‘락토프리’ 표기를 허용한 바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 식품농업부가 계속해서 해당 업체의 제품에 유제품 용어와 홈페이지상에 구조된 젖소를 안고 있는 여성의 사진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올해 초 비영리단체 동물보호법률기금(ALDF)이 업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 번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업체관계자는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세계 전역에서 식물성 대체식품의 낙농용어 사용제한을 놓고 업계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출처 : vegnews.com, 8월 11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